

주간건설 *Review*

655호 2020.12.18(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락처 : 02-771-7936

주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 **업계 동향**

- ▶ 호반건설, 박철희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 ▶ 현대건설, 운영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 ▶ DL E&C, 마창민 신임 대표이사 선임
- ▶ 한화건설, 동반성장 위한 '상생 꾸러미' 나눔행사
- ▶ 대림산업, 해외 근로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건설업 3분기 매출액 및 수익률 동반 하락세
- ▶ 건설업 매출 사상 첫 400조원 돌파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 고용노동부, '사망 사고시 외국인 고용 제한' 추진
- ▶ 조달청,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 마련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0.12.12(토)~2020.12.18(금)>

제655호 2020.12.18(금)

<업계 동향>

◆ 호반건설, 박철희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 12월17일 호반그룹은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해 호반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박철희 사장을 선임하였음
- 지난 1999년 호반건설에 입사한 박철희 대표이사는 스카이밸리 사장을 거쳐 2011년부터 호반건설 사업담당 임원을 거쳐 사업총괄로 재직하면서 택지, 공모사업, 도시정비사업, 복합개발, 컨소시엄 등 대규모 수주를 이끌어 왔음
-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박철희 대표이사는 호반건설 사업본부장에서 2015년말 부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사장으로 승진해 업무를 수행해 왔음



박철희 대표이사

◆ 현대건설, 윤영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 12월15일 현대현대자동차그룹은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통해 윤영준 현대건설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였음
- 현대건설은 신임 윤영준 사장이 고급주택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론칭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던 내부 출신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현대건설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신임 윤영준 사장은 1957생으로 △연세대 환경학 석사 △청주대 행정학 학사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 △현대건설 공사지원사업부장(전무) △현대건설 사업관리실장(상무) 등을 역임하였음



윤영준 대표이사

◆ DL E&C, 마창민 신임 대표이사 선임

- 12월15일 대림산업은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DL E&C(디엘이앤씨)의 대표이사에 마창민 건설사업부 경영지원본부장을 내정하고 1월4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마창민 신임 대표이사는 미국 메리마운트대학 학사와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석사(MBA) 출신으로 1995년 존슨앤 존슨 한국 지사에 입사한 이후 2005년 LG전자로 옮겨 15년간 MC 한국사업 마케팅팀 상무, MC 글로벌마케팅 전략팀 상무, MC 미국 법인 전무, MC 상품전략그룹 전무 등을 역임한 뒤 지난 11월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영입되었음
- 대림산업은 신임 마창민 대표이사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 기획 전문가로서 신사업·신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디벨로퍼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음



마창민 대표이사

◆ 한화건설, 동반성장 위한 '상생 꾸러미' 나눔행사

- 12월17일 한화건설 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협력사를 위로하고, 긴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갈비, 쌀, 전통 장 세트, 수제 와인 등 특산물 선물 꾸러미를 제작해 협력사에 전달하는 '상생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음
- 한화건설은 매년 100여 개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결의 행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대체 행사를 마련하였음



협력사에 전달할 '상생 농산물 꾸러미'를 트럭에 싣고 있는 한화건설 직원들

- 지난 2007년부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한화건설은 약 150억 원 규모 '상생펀드'를 비롯해 100억 원 규모 '일자리창출 상생펀드' 등 총 250억 원 규모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등의 각종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임

◆ 대림산업, 해외 근로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 12월13일 대림산업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근로자에 대해 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고 밝혔음

- 현재 해외 14개 국가에 체류 중인 모든 대림산업 임직원은 진료에 필요할 경우 본인의 증상과 희망 과목을 선택해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대병원 본원 국제진료센터 가정의학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호흡알레르기,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과목의 교수진들이 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게 됨
- 비대면 진료 후 현지 처방 약 성분 등 의약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증명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 처방이 제공됨
- 대림산업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열악한 시설과 의사 소통의 한계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해외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사내 의무실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들과 원격진료 시스템을 시연 중인 대림산업 직원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0.12.12(토)~2020.12.18(금)>

제655호 2020.12.18(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업 3분기 매출액 및 수익률 동반 하락세

- 12월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 3분기 건설사의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7%를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 건설업은 여타 업종과 비교해 여전히 양호한 성장세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외감법인 전체 매출성장률고 수익성이 지난 2분기 대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 올해 들어 매분기 매출성장률 및 수익률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 성장성

- 2020년 3/4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3.2%로 전분기(-10.1%)에 비해 하락률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건설업도 전분기(-3.2%) 보다는 축소된 -2.7% 하락하였지만 2분기 연속 매출감소세를 이어갔음
- 2020년 3/4분기 외감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해 전년동기(1.1%)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1.6% 증가하였음

<주요 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감률 ¹⁾					총자산증가율 ²⁾				
	2019		2020			2019		2020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전 산 업	-2.8	-0.5	-1.9	-10.1	-3.2	1.1	-0.6	1.5	1.1	1.9
건 설	-4.9	3.2	1.1	-3.2	-2.7	-0.5	0.1	-0.1	1.7	1.6

자료 : 한국은행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말대비

□ 수익성

- 2020년 3/4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0%로 전년동기(4.7%)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1%로 전년동기(5.5%)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올해 1분기(6.9%)와 2분기(6.7%)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

이고 있음

- 2020년 3/4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5.6%로 전년동기(4.9%)에 비해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 매분기 지속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건설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6.4%로 전년동기와 같았지만 올해들어 매분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수익성지표>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2019		2020			2019		2020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전 산 업	4.7	2.6	4.1	5.3	6.0	4.9	0.4	4.8	5.2	5.6
건 설	5.5	4.2	6.9	6.7	5.1	6.4	3.4	8.2	6.6	6.4

자료 : 한국은행

□ 안정성

- 2020년 3/4분기말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86.8%로 전분기(87.0%)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건설업의 부채비율도 117.4%로 전분기(118.8%) 대비 하락
- 2020년 3/4분기말 외감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25.3%로 전분기(25.5%)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의 차입금의존도 역시 22.3%로 전분기(22.1%)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주요 안정성지표>

(%)

	부채비율 ¹⁾					차입금의존도 ²⁾				
	2019		2020			2019		2020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전 산 업	83.5	84.3	88.0	87.0	86.8	24.2	25.1	25.3	25.5	25.3
건 설	101.9	96.4	102.4	118.8	117.4	18.0	17.2	18.3	22.1	22.3

자료 : 한국은행

주: 1) 부채 ÷ 자기자본 × 100 2) (차입금 + 회사채) ÷ 총자산 × 100

◆ 건설업 매출 사상 첫 400조원 돌파

- 12월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2019년 건설업 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타남
- 특히 2019년 건설업 매출액은 401조3천억원을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1974년 이래 처음으로 400조원대를 돌파

<주요내용>

□ 건설업 주요지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	증감률(%)
기업체수(개)	72,376	75,421	78,849	3,428	4.5
종사자수(천명)	1,670	1,698	1,710	12	0.7
매출액(조원)	392.0	394.2	401.3	7.1	1.8
건설비용(조원)	374.3	376.4	383.6	7.2	1.9
부가가치(조원)	119.7	125.3	128.6	3.3	2.6

□ 건설업 기업체수 및 종사자

- 2019년 기업체수는 78,849개로 전년대비 4.5%(3,428개)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71만명으로 전년대비 0.7%(1만2천명) 증가
- 종합건설업체는 11,367개로 3.0% 증가하였으며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67,482개로 4.8% 증가
- 종합건설업 종사자수는 53만4천명으로 1.7%(-9천명) 감소하였으며, 전문직별 공사업 종사자수는 117만 6천명으로 1.8%(2만1천명) 증가

□ 건설업 매출액

- 2019년 건설업 매출액은 401.3조원으로 전년대비 1.8%(7.1조원) 증가
- 종합건설업 매출액이 245.3조원으로 0.4% 증가하였으며, 전문직별 공사업 매출액이 156조원으로 4.1% 증가
- 특히, 건설업 매출액이 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

<건설업 매출액 추이>



□ 건설비용 및 건설업 부가가치

- 2019년 건설비용은 383.6조원으로 전년대비 1.9%(7.2조원) 증가
- 종합건설업에서 234.4조원으로 0.8% 증가하였으며,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149.1조원으로 3.6% 증가
- 2019년 건설업 부가가치는 128.6조원으로 전년대비 2.6%(3.3조원) 증가
- 종합건설업은 55.8조원으로 2.1% 감소하였으며, 전문직별 공사업이 72.8조원으로 6.5% 증가

<건설업 산업별 부가가치>

(단위 : 조원, %)

구 분	부가가치			전년대비	
	'18년	'19년	구성비	증감	증감률
건 설 업	125.3	128.6	100.0	3.3	2.6
종합건설업	57.0	55.8	43.4	-1.2	-2.1
건물건설업	47.3	43.9	34.2	-3.4	-7.2
토목건설업	9.7	11.9	9.2	2.2	22.9
전문직별 공사업	68.3	72.8	56.6	4.5	6.5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27.3	28.5	22.2	1.2	4.6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11.6	12.6	9.8	1.0	8.6
전기 및 통신공사업	14.9	16.1	12.5	1.2	8.3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13.6	14.5	11.3	0.9	6.5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0.9	1.0	0.8	0.1	9.4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0.12.12(토)~2020.12.18(금)>

제655호 2020.12.18(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12월17일 대통령 주재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함
-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이 두 가지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 * (1)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2)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3)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4)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5)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6)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중 건설관련 주요내용>

□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 공공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등)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127만호(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전세시장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적극 검토
 - ⇒ 질 좋은 민간임대 건설 촉진을 위해 리츠, 펀드 활용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 국내관광 회복에 대비 5개 관광거점도시별(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교통, 숙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 투자 회복세 지속에 총력하기 위해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

- 공공 :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soc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
- 민간 : 도로, 철도 외에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신유형사업 등 신규 민자사업 발굴 및 집행계획 이행
- 기업 :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어로 해소 지원으로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 생활 soc 투자를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청, 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 착공 등 건설투자 보완노력도 지속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38개 선정,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결합 등 사업방식 다각화

□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기구의 매입 연장을 추진하고, P-CBO 발행, 저신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 지속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
-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19개 soc 설계, 착공, 4개 R&D 실증, 사업화 공정의 차질없는 지원)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산단 복지 멀티플렉스 시범사업”(산단내 단일 건축물에 다수 근로자 복지시설 입주 방식) 등 환경개선 추진

□ 안정,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 친환경화 가속화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8.3만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등 지속 추진
-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
-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 노동시장 상생여건 조성

◆ 고용노동부, ‘사망 사고시 외국인 고용 제한’ 추진

-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고용허가제(E-9·H-2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해 최대 3년간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체류자격과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해 건설업계 및 현장에서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코로나와 주52시간제 확대 등으로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에 무한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건설안전특별법 등과 맞물리는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있음
- 한편,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의 등을 거치면,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음

◆ 조달청,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 마련

- 조달청은 12월15일 일반공사에 입찰자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황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고, 조달청은 2021년 12월 까지 운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음
- 한편,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10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중심제와 기술형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을 혼합한 제도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 주요내용>

□ 대안서 작성 대상 축소

- 대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1단계 심사통과자) 5개사로 줄이기로 함
- 이에 따라, 조달청은 2단계 심사 준비기간을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입찰에 준하는 2~3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며, 1단계 심사는 기존 대안제안 요약 평가 항목이 없어지고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입찰금액과 공사수행능력만으로 2단계 심사대상자를 추리게 됨

□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

- 주목할 만한 점은 1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한 것

□ '기능성 제안 항목' 삭제 및 수요기관 중심의 평가항목 다변화

- 조달청은 입찰 참여업체들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능성 제안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기능성 제안* 항목을 없애고 대신 제안서 평가항목을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맞춰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하여 선택하고 그를 통해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도록 함

* 해당 기능을 완전히 변경하는 것으로, 입찰참여 업체에서 설계 등을 제안하는 것